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 이전 검토

이자소득 비과세 올해 종료
 정부지원금에 연금리 3.5%
 ‘10년 1억’ 만들기 내년 출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90만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의 역점적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년층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뒤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로 종료되면서 국회가 제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원래 올해 말로 일몰을 정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라 내년에는 가입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재출시 여부는 불확정적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

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는 내년 초는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뉴스



광주본부세관장 기아광주공장 방문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25일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인 수송장비산업의 대표 수출기업 기아(주) 광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라-우 사태 지속 등에 대한 위기 극복과 차세대 친환경차 및 모빌리티 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목포원예농협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 달성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목포원예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3,000억 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의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 건설경기와 내실 성장을 유도하고 농축협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시행 중인 제도다.
 목포원예농협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축과 대내외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도 조합장을 주축으로 전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흥훈 조합장은 “상호금융예수금 3,000억원 달성은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난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서홍 본부장은 “예수금 달성탑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제타에 신규 OE 공급

저소음, 마모·주행성능 강화

금호타이어가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타’ 7세대 페이스 리프트 차량에 OE(신차용 타이어, 205/55R17, 205/60R16 TA31)를 공급한다.

제타는 1979년 출시된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세단으로, 이번 7세대 페이스 리프트 차량은 역동적인 비율과 넓은 실내공간,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 ADAS(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등 새로운 기능성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이 장착됐다.

제타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솔루션(SOLUS) TA31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컴포트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TA31은 저소음과 동급대비 높은 마모성능, 주행성능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다양한 규격의 라인업을 갖췄으며 폭넓은 규격만큼 대·중·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별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타이어트레드는 최적의 블록 및 패턴 배열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블랙강성을



강화해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앙부에는 4개의 넓은 직선형 배수홈을 설계하고 딥플(Dimple)을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성능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이번 폭스바겐 제타 OE 공급은 금호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금호타이어는 앞으로도 R&D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코세페’ 참여기업 모집... 10월까지 접수

11월 전국서 최대규모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개최 100일을 앞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쇼핑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한 국내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만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다.

오는 11월부터 15일간 전국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10월 31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참여기업은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코세페 로고 및 홍보모델 이미지도 활용 가능

하다.
 또한, 코리아세일페스타 주관으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특템마켓 판매행사 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는 ‘서민 물가안정’을 목표로 ▲대형 유통사 중심의 빅세일데이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기획전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신청 문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